



MMCA Film & Video

국립현대미술관
MMCA필름앤비디오



또 다른 이야기
**Because the Story Is
Not the Same**
2017. 7. 19. — 8. 20.

'불확정성의 원리' 전시 연계 특별상영
Special screenings in relation to the
exhibition *The Principle of Uncertainty*

프로그램 행사

아티스트 토크: 재커리 폼왈트

일시	2017. 7. 26 (수) 오후 4시
장소	MMCA필름앤비디오
진행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아티스트 Q&A: 재커리 폼왈트

일시	2017. 7. 27 (목) 오후 2시
장소	MMCA필름앤비디오

*상영 후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Program Events

Artist Talk: Zachary Formwalt

Date	Jul. 26, 2017 (Wed) 4:00 p.m.
Venue	MMCA Film and Video
Moderator	Dongjin Seo (Professor,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Artist Q&A: Zachary Formwalt

Date	Jul. 27, 2017 (Thu) 2:00 p.m.
Venue	MMCA Film and Video

*A Q&A session with the artist will follow after the screening.

목차

서문	4
상영시간표	8
왈리드 라드	10
남쪽 끝으로	
갈등의 무게는 여전히	
인질: 바하르 테이프 (#17과 #31)	
우리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호 추 니엔	15
우타마—역사 속의 모든 이름은 나	
보헤미안 랩소디 프로젝트	
거울	
죽어가는 자들의 세계	
여기 어딘가에	
미지의 구름	
더 네임	
더 네임리스	

권하윤	25
증거부족	
모델 빌리지	
489년	

재커리 폼왈트	30
화폐 가치	
이미지의 자본론	
언서포티드 트랜짓	

Contents

Foreword	6
Screening Schedule	9
Walid Raad	10
Up to the South	
The Dead Weight of a Quarrel Hangs	
Hostage: The Bachar Tapes (#17 and #31)	
We Can Make Rain but No One Came to Ask	

Ho Tzu Nyen	15
Utama—Every Name in History Is I	
The Bohemian Rhapsody Project	
Reflections	
Earth	
Here	
The Cloud of Unknowing	
The Name	
The Nameless	

Hayoun Kwon	25
Lack of Evidence	
Model Village	
489 Years	

Zachary Formwalt	30
At Face Value	
In Place of Capital	
Unsupported Transit	

MMCA필름앤비디오는 전시 ‘불확정성의 원리’ 참여작가인 왈리드 라드, 호 추 니엔, 권하윤, 재커리 폼왈트의 영상 작품들을 모아 상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시기, 지역,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네 작가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한다. 각기 다른 주제와 방법론을 가진 이들의 작품은 공적 역사와 개인의 기억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환상적 리얼리즘의 단편소설들을 썼던 아르헨티나의 문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그의 단편집 『불한당들의 세계사』 서문에서 “스스로의 장치들을 모두 드러내 보이고 남용하는 단계에 이른 모든 예술의 마지막 국면을 바로크라 부르고자 한다”라고 썼다. 움직이는 이미지로 생산되는 이야기성의 마지막 국면이 사실성에 대한 고찰을 넘어서는 때, 우리는 무엇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는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가 누구인지조차 헛갈리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 ‘아틀라스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레바논 출신 작가 왈리드 라드의 영상작업 네 편은 보르헤스가 말한 바로크의 미학을 실천했다고 봐도 무방한 작품들이다. 특히 그의 작품 <인질: 바하르 테이프 (#17과 #31)>(2001), <갈등의 무게는 여전하다>(1999)의 경우 실제와 허구가 결합해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보인다. <갈등의 무게는 여전하다>에서 레바논 전쟁에 관한 저명한 역사학자로 불리는 가공의 인물 파들 파쿠리 박사의 이야기, 레바논 보안기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베이루트 코니시 해변 산책로의 풍경과 같은 자료화면과 텍스트로 지시되는 역사적 사실은 특정 인물, 또는 사건의 진위 여부보다 훨씬 복잡적이며 허구적이다. 따라서 사건의 원인은 아득히 먼 어느 시점에 있는지도 모르며, 왈리드 라드의 작품들은 통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작품의 주제인 작가의 존재조차 부정하는 거대한 농담처럼 비친다.

싱가포르 작가 호 추 니엔의 영상 작업은 우리가 파악하는 현실의 이미지와 소리 세계를 벗어난 또 다른 현상들을 묘사한다. <미지의 구름>(2011)에서 둔중한 몸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거구의 남자들을 감싸는 정체불명의 하얀 수증기, <죽어가는 자들의 세계>(2009-2012)에서 몸의 물질성을 떠나 죽어가는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누워 있는 닫힌 공간 속에 흐르는 미세한 소리, 이것들은 모두 유령 또는 망령처럼 우리의 세계를 떠도는 어떤 사상과 존재들을 이야기한다. 이후 제작된 <더 네임>(2015)이나 <더 네임리스>(2015)와 같은 푸티지 작품 또한 말라야 공산당의 역사와 싱가포르 건국의 역사가 교차하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존 인물들의 미스터리를 통해 가려지거나 소외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이야기한다. 호 추 니엔의 유일한 장편 영화로 2009년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 선정되기도 했던 <여기 어디엔가>(2009)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된 주인공과 함께 이 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의 이상행동을 관찰하게 한다. 19세기 동화, 싱가포르 건국 신화, 유럽 고전 화가들의 회화, 록그룹 퀸의 노래 등, 호추니엔의 영화는 다양한 텍스트를 차용하여 알레고리의 세계를 구현한다.

한국의 작가 권하윤은 남북 분단의 역사와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인 판문점이나 DMZ처럼 실재하는 영역을 배경으로 하거나 또는 나이지리아에서 탈출한 소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초현실적인 공간을 재구성하는 일련의 영상작업들을 해오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한 VR 설치 작품이었던 <489년>(2016), 북한의 선전용 거주지인 기정동 마을에서 영감을 얻어 구성된 허구적 도시의 청사진인 <모델 빌리지>(2014), 프랑스로 망명한 나이지리아 청년이 어린 시절 죽음의 손아귀에서 탈출하는 과거의 순간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증거부족>(2011)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극장용 2D 버전으로 상영된다. 실험적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인 <증거부족>이나 북한의 거주지를 상상적으로 재현한 <모델 빌리지>는 모두 드로잉 기법 또는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한 미니어처로 가상의 공간을 창조한다. VR 영화인 <489년>은 실사를 3D 컴퓨터그래픽으로 변환한 작품이다. 권하윤의 세 작품은 모두 타인의 기억을 통해 이야기되는 특정 시공간을 공허한 우주에 고립된 채 떠 있는 섬처럼 묘사한다. 관객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건되는 타인의 기억 속 공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미국 작가 재커리 폼왈트는 자본의 역사와 영화 탄생 이전의 사진술로 기록된 공간의 흔적을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화폐 가치>(2008)는 화폐 가치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덧인쇄되는 우표 이미지를 분석하며, <이미지의 자본론>(2009)은 자본의 역사를 상징하는 런던의 왕립증권거래소 건물이 담긴 풍경사진을 분석한다. <언서포티드 트랜짓>(2011)은 중국의 첫 경제특별구인 선전(深圳)의 한 공사 현장과 자본가의 요구에 의해 달리는 말의 발이 공중에 뜬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연속사진을 촬영했던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작업이 역설적으로 관련된다. 재커리 폼왈트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이미지의 상호관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현실의 움직임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이미지가 바로 자본의 운동성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흔적임을 증명하려는 시도와 같다.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소개되는 네 작가의 작품은 해체와 변형, 재구성과 분석을 통해 역사의 총체성을 부정하면서 이미지의 실체란 애당초 허구적으로 가공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우리에게 남긴다.

Foreword

MMCA Film and Video presents a screening program with single channel works of Walid Raad, Ho Tzu Nyen, Hayoun Kwon, and Zachary Formwalt who are the participating artists of the exhibition *The Principle of Uncertainty*. This program introduces the moving-image works of four artists who have been unfolding ongoing projects based on their consistent research about specific time, geographical and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se moving image works, with its profoundly allegorical approach in diverse themes and methodologies, address together in reconstructing the hidden stories between personal memory and public history.

In the preface of the collection of short stories titled *A Universal History of Infamy*, Argentina's distinguished writer Jorge Luis Borges wrote as follows: "I would say that the final stage of all styles is baroque when that style only too obviously exhibits or overdoes its own tricks." When the final phase of the moving image's narrativity surpassed contemplation of the reality, we reached a point where we can no longer tell what actually took place or who the artist behind the story is. It is fair to say that the four films by the Lebanese artist Walid Raad, who founded a fictional archive 'The Atlas Group', are realizations of the Baroque aesthetic that Borges has mentioned. *Hostage: The Bachar Tapes (#17 and #31)*(2001) and *The Dead Weight of a Quarrel Hangs* in particular seem to write a different history by combining reality and fiction. *The Dead Weight of a Quarrel Hangs* puts together the story of Dr. Fadl Fakhouri, a fictitious character who is a well-known historian with an expertise in Lebanon War, along with footages of Corniche beach promenade in Beirut where Lebanese security agency has installed surveillance cameras, and text. These elements points to a historical fact that is far more complex and fictitious than a simple truth about a particular person or an event. Thus, the cause of the event is far lost, nowhere to be found within the passage of time. The works of Walid Raad reveal themselves as a huge joke that contradicts

the conventional idea of history as well as the existence of the artist as the main agent of the work.

Ho Tzu Nyen from Singapore presents films that portray phenomena disparate from the world of image and sound to which we are familiar. Elements such as unidentifiable white vapor that surrounds the male bodies large enough to deliver the sense of their massive weight from *The Cloud of Unknowing*(2011), the minute sounds that occupy the enclosed space where a group of dying people are leaving the materiality of the body from *Earth*(2009-2012) narrate a kind of idea or being that roam around our world like ghosts or specters. Footages works that follow such as *The Name*(2015) and *The Nameless*(2015) tell the stories of invisible beings who have been obscured or alienated through mysterious narratives of real people who played a prominent role at a time when history of the Malayan Communist Party and that of the foundation of Singapore cross over. *Here*, the only feature film of Ho Tzu Nyen and the nominee of Cannes Film Festival's Directors' Fortnight, leads the audience to observe the character who gets incarcerated in a mental health facility for killing his wife for unknown reasons as well as other accommodated patients' abnormal behavior. Ho Tzu Nyen's films incorporate various texts such as fairy tales from the 19th century, Singapore's founding myth, paintings by classical European painters and the rock band Queen's songs to realize the world of allegories.

Hayoun Kwon is a Korean artist who has produced a series of films that reconstruct a surreal space based on existing places such as Panmunjeom and demilitarized zone that symbolize the history and reality of division of Korea, or real stories like the one of a Nigerian boy who escaped his country. The following works will be presented in 2D theatre version: *489 Years*, a VR film based on DMZ; *Model Village*(2014) that shows a blueprint of a fictitious city inspired by the North Korean propaganda village of Kijong-dong; *Lack of Evidence*(2011),

an animated film that restructures the moment of the past when a Nigerian refugee in France escaped death in his childhood. An experimental animated documentary that tells the story of a Nigerian boy's journey of escape *Lack of Evidence* and an imaginative representation of a North Korean habitation *Model Village* both create imaginary spaces with drawing techniques or miniatures in transparent acrylic. Also, *489 Years* converted the actual image with a 3D graphic software. Three films of Hayoun Kwon describe a particular space and time narrated through others' memories as if they are islands that float around separately in the hollow universe. The audience is led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space from the others' memories that are reconstructed by the artist's imagination.

Zachary Formwalt is an American artist based in Netherlands. He has focused on analyzing images through the history of capital and the traces in photographed space before the invention of cinema. *At Face Value*(2008) analyzes the stamp images with overprints of modified pric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ir values while *In Place of Capital*(2009) explores the landscape photographs of the Royal Exchange in London, an architecture symbolic of the history of capital. *Unsupported Transit*(2011) paradoxically connects a construction site in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and Eadweard Muybridge's sequential photographs that are produced upon a request of a capitalist to capture a galloping horse's feet afloat. As such, Zachary Formwalt examines the correlation of Karl Marx's *Capital* and image with consistency. Such an attempt testifies that the remaining images within a space with the reality's movements long gone are the invisible traces of the mobility of capital.

Because the Story Is Not the Same presents four artists' films denies the totality of history while leaving us with a suspicious that the substance of reality itself is already fabricated from the very beginning through approaches such as deconstructing and transforming, reconstructing and analyzing.

상영 시간표

2017. 7. 19. — 8. 20.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7.19 19:00 ¹² ^K 제커리 폼왈트 단편 프로그램 (62min) - 화폐 가치 - 이미지의 자본론 - 언서포티드 트랜짓	20 15:00 ¹⁵ ^K 왈리드 라드 남쪽 끝으로 (60min)	21 15:00 ¹⁵ ^K 호 추 니엔 단편 프로그램 (86min) - 우타마—역사 속의 모든 이름은 나 - 보헤미안 랍소디 프로젝트 - 거울 - 죽어가는 자들의 세계	22 15:00 ¹² ^K 권하윤 단편 프로그램 (32min) - 증거부족 - 모델 빌리지 - 489년 19:00 ¹⁵ ^K 호 추 니엔 여기 어딘가에 (84min)	23 15:00 ¹⁵ ^K 호 추 니엔 단편 프로그램 (86min) - 우타마—역사 속의 모든 이름은 나 - 보헤미안 랍소디 프로젝트 - 거울 - 죽어가는 자들의 세계
26 16:00 아티스트 토크: 제커리 폼왈트	27 14:00 ¹² ^K 제커리 폼왈트 단편 프로그램 (62min) - 화폐 가치 - 이미지의 자본론 - 언서포티드 트랜짓 아티스트 Q&A	28 15:00 ¹⁵ ^K 호 추 니엔 단편 프로그램 (86min) - 우타마—역사 속의 모든 이름은 나 - 보헤미안 랍소디 프로젝트 - 거울 - 죽어가는 자들의 세계	29 15:00 ¹⁵ ^K 호 추 니엔 단편 프로그램 (65min) - 미지의 구름 - 더 네임 - 더 네임리스	30
8.2 19:00 ¹⁵ ^K 호 추 니엔 여기 어딘가에 (84min)	3 15:00 ¹⁵ ^K 왈리드 라드 단편 프로그램 (51min) - 갈등의 무게는 여전하다 - 인질: 바하르 테이프 (#17과 #31) - 우리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4 15:00 ¹⁵ ^K 왈리드 라드 남쪽 끝으로 (60min)	5 15:00 ¹² ^K 권하윤 단편 프로그램 (32min) - 증거부족 - 모델 빌리지 - 489년	6
9 19:00 ¹⁵ ^K 왈리드 라드 단편 프로그램 (51min) - 갈등의 무게는 여전하다 - 인질: 바하르 테이프 (#17과 #31) - 우리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10 19:00 ¹⁵ ^K 왈리드 라드 남쪽 끝으로 (60min)	11 15:00 ¹⁵ ^K 호 추 니엔 단편 프로그램 (65min) - 미지의 구름 - 더 네임 - 더 네임리스	12 15:00 ¹² ^K 제커리 폼왈트 단편 프로그램 (62min) - 화폐 가치 - 이미지의 자본론 - 언서포티드 트랜짓	13
16 19:00 ¹⁵ ^K 호 추 니엔 단편 프로그램 (65min) - 미지의 구름 - 더 네임 - 더 네임리스	17 19:00 ¹⁵ ^K 호 추 니엔 여기 어딘가에 (84min)	18 15:00 ¹⁵ ^K 호 추 니엔 단편 프로그램 (86min) - 우타마—역사 속의 모든 이름은 나 - 보헤미안 랍소디 프로젝트 - 거울 - 죽어가는 자들의 세계	19 15:00 ¹⁵ ^K 왈리드 라드 단편 프로그램 (51min) - 갈등의 무게는 여전하다 - 인질: 바하르 테이프 (#17과 #31) - 우리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20 15:00 ¹² ^K 권하윤 단편 프로그램 (32min) - 증거부족 - 모델 빌리지 - 489년

Screening Schedule

2017. 7. 19 — 8. 20

WED	THU	FRI	SAT	SUN
7.19 19:00 ¹² ^K Zachary Formwalt Short Program (62min) - At Face Value - In Place of Capital - Unsupported Transit	20 15:00 ¹⁵ ^K Walid Raad Up to the South (60min)	21 15:00 ¹² ^K Hayoun Kwon Short Program (32min) - Lack of Evidence - Model Village - 489 Years 19:00 ¹⁵ ^K Ho Tzu Nyen Here (84min)	22 15:00 ¹² ^K Hayoun Kwon Short Program (32min) - Lack of Evidence - Model Village - 489 Years 19:00 ¹⁵ ^K Ho Tzu Nyen Here (84min)	23 15:00 ¹⁵ ^K Ho Tzu Nyen Short Program (86min) - Utama—Every Name in History is I - The Bohemian Rhapsody Project - Reflections - Earth
26 16:00 Artist Talk: Zachary Formwalt	27 14:00 ¹² ^K Zachary Formwalt Short Program (62min) - At Face Value - In Place of Capital - Unsupported Transit Artist Q&A	28 15:00 ¹⁵ ^K Ho Tzu Nyen Short Program (86min) - Utama—Every Name in History is I - The Bohemian Rhapsody Project - Reflections - Earth	29 15:00 ¹⁵ ^K Ho Tzu Nyen Short Program (65min) - The Cloud of Unknowing - The Name - The Nameless	30
8.2 19:00 ¹⁵ ^K Ho Tzu Nyen Here (84min)	3 15:00 ¹⁵ ^K Walid Raad Short Program (51min) - The Dead Weight of a Quarrel Hangs - Hostage: The Bachar Tapes (#17 and #31) - We Can Make Rain but No One Came to Ask	4 15:00 ¹⁵ ^K Walid Raad Up to the South (60min)	5 15:00 ¹² ^K Hayoun Kwon Short Program (32min) - Lack of Evidence - Model Village - 489 Years	6
9 19:00 ¹⁵ ^K Walid Raad Short Program (51min) - The Dead Weight of a Quarrel Hangs - Hostage: The Bachar Tapes (#17 and #31) - We Can Make Rain but No One Came to Ask	10 19:00 ¹⁵ ^K Walid Raad Up to the South (60min)	11 15:00 ¹⁵ ^K Ho Tzu Nyen Short Program (65min) - The Cloud of Unknowing - The Name - The Nameless	12 15:00 ¹² ^K Zachary Formwalt Short Program (62min) - At Face Value - In Place of Capital - Unsupported Transit	13
16 19:00 ¹⁵ ^K Ho Tzu Nyen Short Program (65min) - The Cloud of Unknowing - The Name - The Nameless	17 19:00 ¹⁵ ^K Ho Tzu Nyen Here (84min)	18 15:00 ¹⁵ ^K Ho Tzu Nyen Short Program (86min) - Utama—Every Name in History is I - The Bohemian Rhapsody Project - Reflections - Earth	19 15:00 ¹⁵ ^K Walid Raad Short Program (51min) - The Dead Weight of a Quarrel Hangs - Hostage: The Bachar Tapes (#17 and #31) - We Can Make Rain but No One Came to Ask	20 15:00 ¹² ^K Hayoun Kwon Short Program (32min) - Lack of Evidence - Model Village - 489 Years

Rating
Ⓢ General
Ⓜ Under 12 not admitted
Ⓛ Under 15 not admitted
Ⓤ Under 19 not admitted

Subtitles
Ⓚ Korean
Ⓔ English



왈리드 라드

왈리드 라드(b.1967)는 비디오, 사진, 에세이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현대미술 작가로, 레바논 슈바니에에서 태어났다. 그의 작업은 주로 레바논의 현대사, 특히 1975년과 1991년 사이의 내전 시기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외상적 사건을 다룬다. 아랍이미지재단의 멤버이기도 한 왈리드 라드는 레바논의 역사에 관해 적극적으로 서술해왔다. 1989년, 그는 레바논의 역사와 전쟁에 관한 기록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 아틀라스 그룹을 설립했다. 아틀라스 그룹은 영화, 비디오, 사진 그리고 기타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기록 방법과 예술 작품의 자율성을 비판하는 가상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이다.

라드는 2011년 핫셀블라드상 수상자이며, 제11회 카셀 도큐멘타와 베니스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베이루트의 엘룰 페스티벌 등에 참여했다. 현재는 뉴욕에 살며, 쿠퍼 유니온 예술대학 교수이다.

Walid Raad

Walid Raad (b.1967) is an internationally known contemporary artist working in media such as video, photography, and essays. He was born in Chbanieh, Lebanon. His work focuses on the recent history of Lebanon, particularly the periods of war between 1975 and 1991; it often deals with traumatic events using various mediums.

Raad is a member of the Arab Image Foundation, and is active in describing the history of Lebanon. In 1989, he founded The Atlas Group, which he uses to promote his work and get the message out on Lebanese history and war. It is a collection of films, videos, photographs, and other documents. The group is the brainchild of Raad. The goal of The Atlas Group is to create a fictional archive that criticizes traditional historical documentation methods and the autonomy of artistic work. Many of the fictional archives are featured in museums throughout the world. His work often examines the ways history is told, and how it can be manipulated.

Raad is also the recipient of the 2011 Hasselblad-Prize and his works have been exhibited at Documenta 11 in Kassel, Germany, The Venice Biennale in Venice, Italy, The Whitney Biennial in New York, and The Ayloul Festival in Beirut, Lebanon, as well as other events and museums throughout North America, Europe, and the Middle East. He currently lives in New York, where he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Cooper Union School of Art.

남쪽 끝으로

제이스 살룸, 왈리드 라드 | 레바논, 미국 | 1993 | 60min | SD | Color

레바논 남부의 정치와 경제 상황 등을 다룬 완곡하지만 강렬한 다큐멘터리. <남쪽 끝으로>는 “토지”와 문화에 대한 이해, 레바논인의 위태로운 정체성과 더불어 이집트의 점령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대중적 저항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 장르와 그 전통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비평을 감행한다.

갈등의 무게는 여전하다

왈리드 라드 | 레바논, 미국 | 1999 | 17min | SD | Color

이 작품은 레바논 내전(1975-1991)의 역사를 쓰는 데에 따른 가능성과 한계를 살핀다. 영상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대신 몇몇 개인에게 닥친 환상적인 상황들을 그린다. 그들은 전쟁에 관해 상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드러나고, 이야기하고 또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더듬어본다.

Up to the South

Jayce Salloum, Walid Raad | Lebanon, USA | 1993 | 60min | SD | Color

An oblique, albeit powerful documentary that examines the current conditions, politics, and economics of South Lebanon. The tape focuses on the social, intellectual, and popular resistance to the Israeli occupation, as well as conceptions of "the land" and culture, and the imperiled identities of the Lebanese people. Simultaneously, the tape self-consciously engages in a critique of the documentary genre and its traditions.

The Dead Weight of a Quarrel Hangs

Walid Raad | Lebanon, USA | 1999 | 17min | SD | Color

This piece investigat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writing a history of the Lebanese civil wars (1975-1991). The videos offer accounts of the fantastic situations that beset a number of individuals, though they do not document what happened. Rather, they explore what can be imagined, what can be said, what can be taken for granted, what can appear as rational, sayable, and thinkable about the wars.



<남쪽 끝으로>, *Up to the South*



<갈등의 무게는 여전하다>, *The Dead Weight of a Quarrel Hangs*

인질: 바하르 테이프 (#17과 #31)

왈리드 라드, 수하일 바하르 | 미국 | 2001 | 17min | SD | Color

<인질: 바하르 테이프>는 수하일 바하르의 증언을 통해 “서양인 인질극” 사건을 살펴본다. 바하르는 1983년부터 1993년까지 레바논에서 인질로 억류되었다. 바하르가 80년대 베이루트에서 납치된 서구인 인질들과 함께 구류된 유일한 아랍계였다는 점에서 그의 감금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1985년에 바하르는 미국인인 테리 앤더슨, 토마스 서덜랜드, 벤자민 와이어, 마틴 젠코, 그리고 데이비드 자콥센과 3달 동안 같은 감방에 있었다. 1999년에 바하르는 아틀라스 그룹(레바논 기반 비영리 문화연구단체)과 협업하여 그의 감금에 대한 53개의 비디오를 만들었다. 그중 #17과 #31은 레바논 밖으로 반출할 수 있었던 비디오 테이프였다. 이 비디오에서 바하르는 미국인들과 함께 감금된 데 대한 문화적, 텍스트적, 성적 측면들을 다룬다.

Hostage: The Bachar Tapes (#17 and #31)

Walid Raad, Souheil Bachar | 2001 | 17min | USA | SD | Color

In *Hostage: The Bachar tapes*, the "Western Hostage Crisis" is examined through the testimony of Souheil Bachar. Mr. Bachar was held hostage in Lebanon between 1983 and 1993. What is remarkable about Souheil's captivity is that he was the only Arab to have been detained with the Western hostages kidnapped in Beirut in the 1980's. In fact, Souheil was held for 3 months in 1985 in the same cell as five American men: Terry Anderson, Thomas Sutherland, Benjamin Weir, Martin Jenco, and David Jacobsen. In 1999, Bachar collaborated with The Atlas Group (a non-profit cultural research foundation based in Lebanon) to produce 53 videotapes about his captivity. Tapes #17 and #31 are the only two tapes Bachar makes available outside of Lebanon. In the tapes, Bachar addresses the cultural, textual, and sexual aspects of his detention with the Americans.



우리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왈리드 라드 | 레바논, 미국 | 2006 | 18min | HD | Color

이 비디오는 레바논의 뛰어난 탄약 전문가 유세프 비타르와 레바논 당국의 수석 조사관,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훌륭한 사진 기자이자 비디오 작가 조르주 스메르디지안의 가능한 협력을 기록한다. 그는 1990년에 잔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간 이어진 레바논 전쟁을 쫓 지켜왔다. 이 비디오는 베이루트의 거리에서 1986년 1월 21일에 벌어진 폭발을 다룬 비타르와 스메르디지안의 다이어그램, 노트, 비디오, 사진 등에 주목한다.

We Can Make Rain but No One Came to Ask

Walid Raad | Lebanon, USA | 2006 | 18min | HD | Color

This video documents a possible collaboration between Yusef Bitar, the Lebanese state's leading ammunitions expert and chief investigator of all car bomb detonations, and Georges Semerdjian, a respected and fearless photojournalist and videographer who, until his violent death in 1990, tirelessly chronicled the Lebanese wars of the past three decades. The video focuses on diagrams, notes, videos and photographs produced by Bitar and Semerdjian about a detonation in Furn Ech Chubak (Beirut) on 21 January 1986.



호 추 니엔

호 추 니엔(b.1976)의 예술적 실천은 영화와 멀티미디어 설치를 아우르며, 다큐멘터리, 연극, 미술, 철학 및 아카이브 자료 등과 같은 이미지와 사건을 통해 역사적인 서사의 구성에 대해 탐구한다.

원래의 시각 자료와 전유된 이미지들은 고국 싱가포르의 식민주의와 종교에 대한 복잡한 명상으로, 구름과 같은 개념에 대한 추상적인 사유로 수렴된다. 환경과 장소 반응성 또한 그의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작업의 맥락을 인식하는 방식은 한 사람의 시각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있다. 호 추 니엔은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 싱가포르관 작가였으며, 상파울루 비엔날레, 칸 영화제, 선댄스 영화제 등에 참여했다.

Ho Tzu Nyen

Ho Tzu Nyen (b.1976)'s artistic practice, which primarily includes film and multichannel installations, explores the construction of historical narratives through images and events such as documentary, theater, art, philosophy, and archival materials. The layers of appropriated and original visual materials converge into complicated meditations on topics such as colonialism in his native Singapore, religion, and even abstract ruminations on concepts such as the cloud. Environments and site responsiveness are also important parts of his work, a recognition of the way a work's context can alter one's viewing experience. Singapore's representative at the 2011 Venice Biennale, Nyen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São Paulo Biennial and the Cannes and Sundance film festivals.

우타마—역사 속의 모든 이름은 나

호 추 니엔 | 싱가포르 | 2003 | 23min | HD | Color

<우타마—역사 속의 모든 이름은 나>는 싱가포르의 건국을 다룬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819년 싱가포르는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 경에 의해 영국 식민지의 일부로 건립되었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 이전 13-14세기에 싱가포르를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수수께끼와 같은 싱가포르의 창시자, 흔히 상 닐라 우타마라고 불리는 인물은 말레이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간주된다. 신화와 전설에 따르면, 우타마는 위대한 왕과 불사신들의 영광스러운 혈통의 후계자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솔로몬 왕과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며, “타밀 땅”의 위대한 정복자인 아버지와 수중 왕국인 디카의 공주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우타마는 해안에서 사자와 마주친 후 싱가포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 사자는 현지 고유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화는 종종 의심을 받기도 한다.



Utama—Every Name in History is I

Ho Tzu Nyen | Singapore | 2003 | 23min | HD | Color

This is a film about the founding of Singapore. In official accounts of its history, Singapore was founded in 1819 by Sir Thomas Stamford Raffles, as part of the British colonial empire. However, virtually little is known about the other, pre-colonial founder of Singapore, who is believed to have founded Singapore sometime between the 13th and 14th century.

Commonly referred to as Sang Nila Utama, this mysterious first founder of Singapore was regarded as the 'first' king of the Malays. According to the myths and legends, Utama was heir to a glorious lineage of great kings and immortals. He was said to have been a descendant of Alexander the Great as well as King Solomon, while his father was believed to be a mighty conqueror from the 'Tamil lands', while his mother was said to be a princess from the underwater kingdom of Dika. Utama was said to have given Singapore its name after encountering a lion along its shores. This anecdote has often been questioned because lions are not a species indigenous to this area.

보헤미안 랩소디 프로젝트

호 추 니엔 | 싱가포르 | 2006 | 7min | HD | Color

<보헤미안 랩소디 프로젝트>는 영국의 록밴드 퀸의 전설적인 히트곡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로 구성된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제작된 비디오 작업이다. 이 작품은 전 싱가포르 대법원을 배경으로 하며, 곧 사형 선고를 받을 소년의 재판을 비춘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이 소년을 연기하며, 노래 가사는 1인당 사형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인 싱가포르에 새로운 층위의 의미를 더한다. 다른 호 추 니엔의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보헤미안 랩소디 프로젝트>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요소(퀸의 노래)에서 시작하되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와 함께 새로운 작업을 생산해낸다. 이 작품에서 현재는 과거로 스며들고 허구는 사실로 녹아든다. 감독의 결정이 마치 삶과 죽음을 가리는 법원에서의 판결과도 같아서, 오디션에 임한 배우들은 재판을 받는 범죄자가 공포를 느끼듯 불안에 떠다.

The Bohemian Rhapsody Project

Ho Tzu Nyen | Singapore | 2006 | 7min | HD | Color

The Bohemian Rhapsody Project is a video with a script based entirely on the lyrics of the legendary hit song 'Bohemian Rhapsody' by the British rock band Queen. Set in the former Supreme Court of Singapore, we witness the trial of a boy, about to be sentenced to death. But the boy is played by multiple actors of all races, and the lyrics of the song begin to take on an added layer of meaning in Singapore, a country with the second highest per capita rate of capital punishment in the world. As with all of Ho's work, *The Bohemian Rhapsody Project* begins with an existing cultural artifact (the song by Queen) and transforms it to produce a new artwork, with new meanings. In this work, the present melts into the past and fiction dissolves into fact. The anxiety of the auditioning actors becomes conflated with the terror of criminals on trial, just as the judgment of the director fuses with the life-and-death judgment of the court.

거울

호 추 니엔 | 싱가포르 | 2007 | 14min | HD | Color

<거울>은 아일랜드계 일본인 작가 라프카디오 현이 19세기에 쓴 동화인 『거울』을 각색한 작업이다. 현의 소설은 거울의 등장과 함께 파국을 맞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작품에서 원래의 이야기는 라캉의 거울 단계에 대한 일화이자 자본주의적 거래에 대한 비판으로 변형되었다. 또한 호 추 니엔의 <거울>은 동화라는 장르에 대한 비평적 전복으로 볼 수도 있다. 동화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른들이 쓴 이야기이다. 이러한 문학 장르를 통해 어른들은 사실상 유년기의 틀을 생산하고 또 구성하게 되었다. 호 추 니엔의 “동화”는 어른의 역할을 “연기”하는 아역 배우들만 등장시켜 이러한 효과를 뒤집는다. 아역 배우들의 어색함은 내러티브의 단선적인 규칙들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게 한다. 이로써 호 추 니엔은 어른 세계의 명령이나 지시로부터 자유로우며 재현을 피해갈 수 있는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한다.

Reflections

Ho Tzu Nyen | Singapore | 2007 | 14min | HD | Color

This video is an adaptation of *Reflections*, a 19th Century children's fable by the ethnic Irish, Japanese writer Lafcadio Hearn, about how the life of a family was completely disrupted by the presence of a mirror. In Ho's work, this story was transformed into an anecdote about the Lacanian mirrorstage, as well as a critique of capitalist exchange. At the same time, Ho's version of *Reflections* can itself be understood as the critical subversion of the genre of the fairytale. A fairytale is a story written by adults for the consumption of children. But through the production of this genre of literature, adults are in fact, producing and constructing the framework of childhood. Ho's "fairy-tale" inverses this by employing only child actors in order to 'play' the adult characters. At the same time, the awkwardness of the child actors preserves their independence from the linear dictates of the narrative. In this way, Ho preserves a space of freedom for a childhood that eludes representation, free from the direction and directives of the adult world.



죽어가는 자들의 세계

호 추 니옌 | 싱가포르 | 2009 | 42min | HD | Color

미지의 재앙이 눈앞에 펼쳐진다. 50명의 사람들은 의식과 무의식, 삶과 죽음을 오가고, 빛은 끊임없이 온기와 한기, 낮과 밤 사이를 왕복한다.

<죽어가는 자들의 세계>는 카라바조, 지로데, 그리고 제리코와 같은 유럽의 고전 화가들이 그린 종말 이후에 대한 회화들의 콜라주이다. 이 작품은 이들의 회화에서 신체가 재구조화 되어온 방식처럼 회화들을 재조립한다.

<죽어가는 자들의 세계>는 세계 곳곳의 실험 음악가 및 사운드 아티스트의 음악을 사운드트랙으로 소환했으며, 옹저버토리(싱가포르), 야스히로 모리나가와 스테파노 필리아(일본, 이탈리아), 블랙 투 컴(독일), 울프럼(폴란드), 오렌 암바치(호주), 온다 아키(일본), 그리고 닐스 프람(독일)와 협업한 결과이다. 이번 상영 버전에는 야스히로 모리나가와 스테파노 필리아의 사운드트랙이 포함되었다.

Earth

Ho Tzu Nyen | Singapore | 2009 | 42min | HD | Color

We see the site of an unknown disaster, where fifty humans oscillate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life and death, as the light constantly alternates between warm to cool, day to night.

Earth is a post-apocalyptic collage of paintings by classical European painters such as Caravaggio, Girodet and Géricault. This video reassembles the paintings the same way that the human body has been reconfigured in some of these paintings.

Earth exists with multiple soundtracks, created by different experimental musicians and sound artists from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Collaborators include The Observatory (Singapore), Yasuhiro Morinaga and Stefano Pillia (Japan, Italy), Black to Comm (Germany), Wolfram (Poland), Oren Ambarchi (Australia), Aki Onda (Japan) and Nils Frahm (Germany).

This version of the film features the soundtrack of Yasuhiro Morinaga and Stefano Pilia.



여기 어딘가에

호 추 니옌 | 싱가포르 | 2009 | 84min | HD | Color

<여기 어딘가에>는 중년 남성 허 쯔위옌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여정을 추적한다.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그는 말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고 아일랜드 병원에 수용된다. 그곳에서 공격적인 도벽 환자 베아트리스를 만나고, 그녀와 설명하기 힘든 유대를 형성한다. 병원에서의 삶에 적응이 될 때쯤 그는 임상 실험 치료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강제로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진실과 마주한다.

Here

Ho Tzu Nyen | Singapore | 2009 | 84min | HD | Color

Here follows the journey of He Zhiyuan, a middle-aged man who struggles to make sense of his reality. Reeling from the sudden death of his wife, he loses the will to speak and is interned at Island Hospital. There, he meets strident kleptomaniac Beatrice with whom he forms an inexplicable bond. As he adjusts to life within, he is selected for an experimental treatment, which forces him to confront the devastating truth behind his past, present, and future.



미지의 구름

호 추 니엔 | 싱가포르 | 2011 | 28min | HD | Color

<미지의 구름>은 14세기 무렵에 쓰인 믿음에 관한 신비주의적 문서에서 제목을 따왔다. 이 문서에서 구름은 역설적으로 미지의 혹은 신성한 경험에 대한 장애물과 조우를 동시에 은유한다.

싱가포르의 인적 없는 저소득 공영주택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8개의 아파트에서 8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각 인물들은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이루었다가 수증기 같은 안개로 바뀌는 구름과 만나기 위한 행위를 하는 중이다. 조우의 순간에는 어떤 전환, 변화, 혹은 발광이 일어난다. 중세의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정신적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감각 경험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다.

The Cloud of Unknowing

Ho Tzu Nyen | Singapore | 2011 | 28min | HD | Color

The Cloud of Unknowing is titled after a fourteenth century mystical treatise on faith, where the cloud is paradoxically a metaphor for both an impediment to, and reconciliation with, the unknown or the divine experience.

Set in a deserted, low-income public housing block in Singapore, the film revolves around 8 characters in 8 apartments, each in the midst of an activity that brings them into an encounter with a cloud that alternates between being embodied in a figure, and as a vaporous mist. In the moment of encounter, a shift, transformation or illumination occurs that, as the medieval text counsels, is effected in a direct experience of the senses, instead of being understood with the mind.



더 네임

호 추 니엔 | 싱가포르 | 2015 | 16min | HD | Color

진 Z. 한라한은 최초로 말레이 공산당의 역사를 서술했지만, 그가 미국정보기관과 연관된 유명 작가라는 의심에도 얼마간 신빙성이 있다. 영상 속 이미지들은 배우들이 글을 쓰는 장면이 등장하는 다양한 서구 영화들로부터 왔다. 진 Z. 한라한은 말레이 공산당의 개괄적 역사에 대해 기록하려 했던 최초의 작가이며,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문학적” 영역까지 아우르는 폭넓고 다양한 글을 남겼다. 그의 전작에서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관심사와 광범위한 지식은 마치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 아래 집필한 듯한 인상을 준다. 호 추 니엔은 한라한의 저서와 그의 글을 인용한 학술적 텍스트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영상에서는 세 명의 성우가 한라한의 글에서 발췌한 텍스트를 번갈아 읽으면서 한라한이라는 인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The Name

Ho Tzu Nyen | Singapore | 2015 | 16min | HD | Color

Gene Z. Hanrahan wrote the first historical account of Malaysia’s communist party. However, there is sufficient reason to suspect that Gene Z. Hanrahan was actually a ghost-writer with links to American intelligence agencies. The images featured in the video are derived from various Western films showing actors engaged in the act of writing. Gene Z. Hanrahan was the first writer who attempted to compose a comprehensive historical account of the Malaysian communist party, also produced a wide variety of other writings, including “historical” as well as “literary” works. His diverse interests and wide fields of knowledge imbue his overall oeuvre with the impression that they comprise pieces written by disparate individuals using a shared alias rather than a single author. Ho Tzu Nyen began to collect Hanrahan’s writings and scholarly texts that quote Hanrahan’s work. The three American voice actors in the video infuse Hanrahan’s character with liveliness by reading excerpts from Hanrahan’s own writings.



더 네임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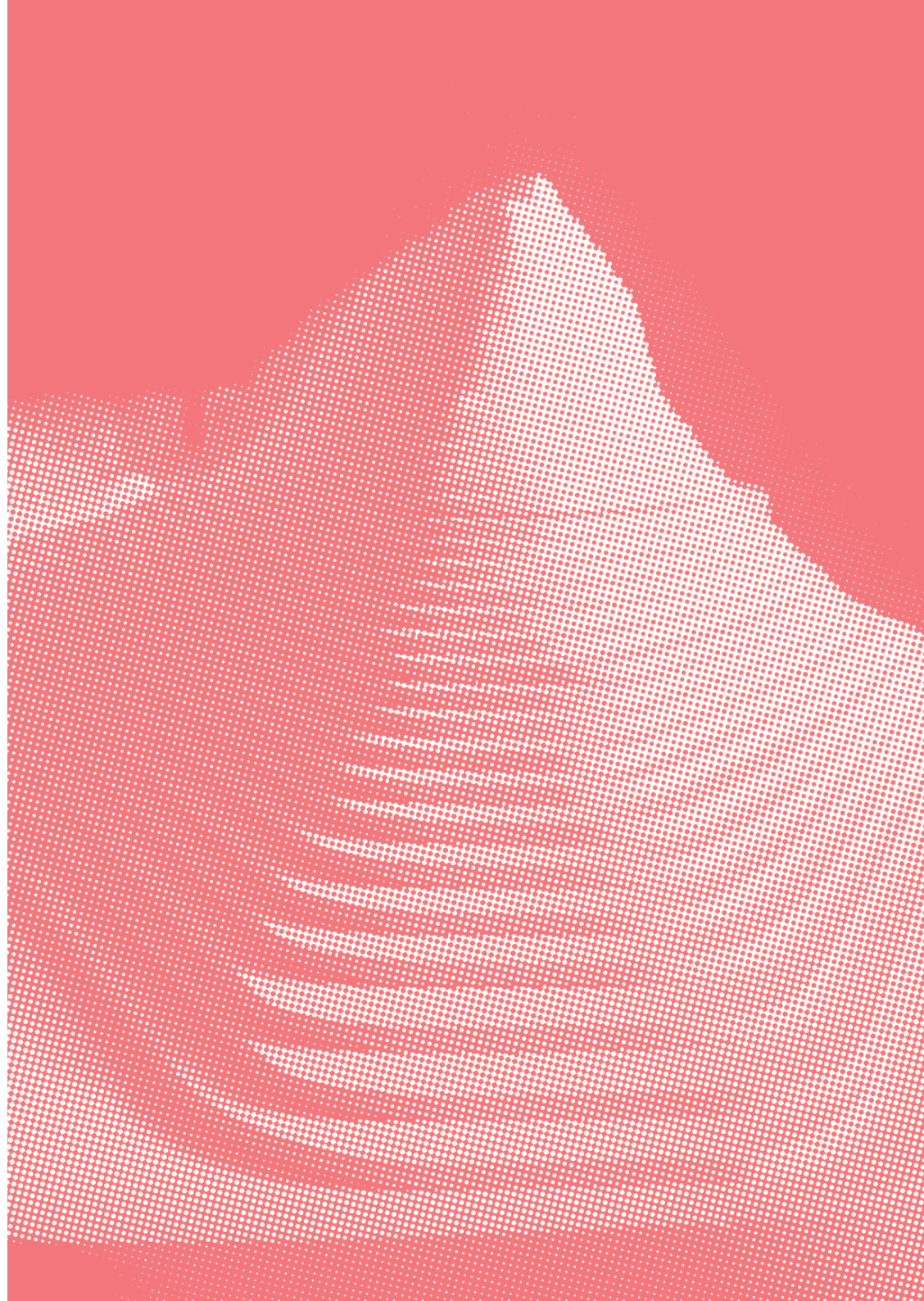
호 추 니엔 | 싱가포르 | 2015 | 21min | HD | Color

‘라이 텍’은 1939년부터 1947년까지 말라야 공산당의 총서기를 지냈으며, 50개가 넘는 가명을 사용해 3중 스파이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 작품은 홍콩 배우 양조위가 20여 년에 걸쳐 출연했던 영화에서 수집한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양조위가 반역자, 앞잡이, 첩보원 등을 연기했던 영화의 푸티지를 통해 미스터리한 인물 라이텍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The Nameless

Ho Tzu Nyen | Singapore | 2015 | 21min | HD | Color

“Lai Teck,” the character in the video, was not only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Malayan Communist Party from 1939 to 1947, but also a triple agent who operated with over fifty aliases. This piece was produced with scenes from films featuring the Hong Kong film star Tony Leung Chiu-wai, spanning over twenty years. In a number of films, Tony Leung Chiu-wai played the roles of traitor, informant, and secret agent.



권하윤

권하윤(b.1981)은 한국의 멀티미디어 작가이다. 그녀는 르 프레누아 — 프랑스 국립현대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정체성과 경계에 대한 권하윤의 사유는 실험적 애니메이션 <증거부족>과 <모델 빌리지>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후의 작업은 역사와 개인의 기억이 구성되는 방식과 현실과 허구 사이의 이중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Hayoun Kwon

Hayoun Kwon (b.1981) is a multimedia artist and documentary director born in South Korea in 1981. She graduated from Le Fresnoy – Studio National des Arts Contemporains in 2011 and she lives and works in France and Korea. The reflection on identity and borders is central to her previous works, *Lack of Evidence* (2011) and *Model Village* (2014). She has focused more specifically on the construction of historical and individual memory and their ambivalent relationship to reality and fiction.

증거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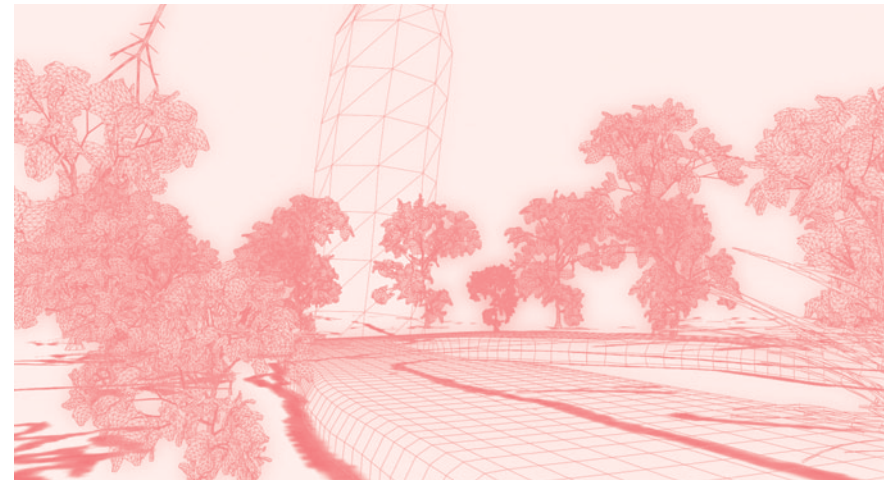
권하윤 | 프랑스 | 2011 | 10min | HD | Color

나이지리아에서 쌍둥이라는 것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다. ‘오’의 아버지는 마을의 추장이자 쌍둥이가 저주 받았다고 믿는 주술사이다. 어느 날 주술사는 제례의식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이려 한다. 탈출을 시도하던 '오'는 그의 형제가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만다. 그는 전국 곳곳으로 도망을 다니다 우연히 나이지리아를 떠나 프랑스로 망명하는 데에 성공한다. 그는 망명 신청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고 만다.

Lack of Evidence

Hayoun Kwon | France | 2011 | 10min | HD | Color

In Nigeria, to be a twin can be a blessing or a curse. The father of O is the village chief, a witch doctor who believes in the curse of twins. One day, this witch doctor tried to kill his two sons during a ritual ceremony: O managed to escape but saw his brother being murdered. Having fled across his country, he succeeded, by chance, in leaving Nigeria and going into exile in France. In this context, he applied for asylum but his application was refused because he could not produce any proof...



모델 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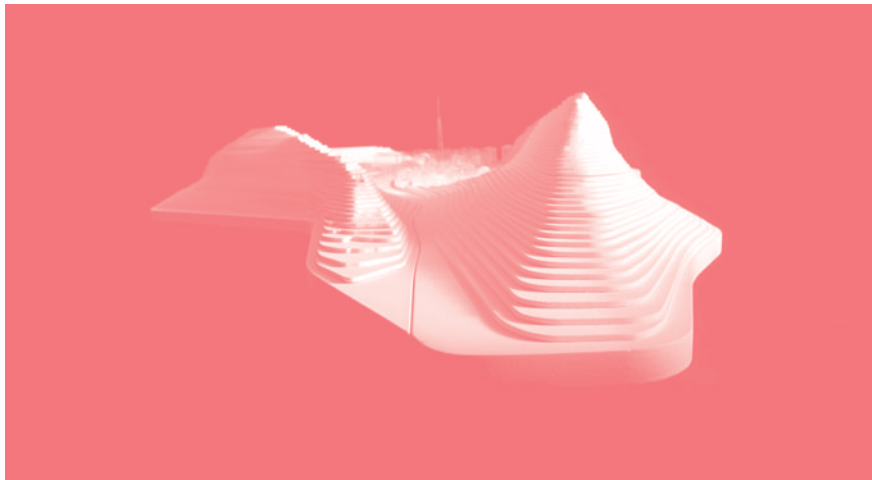
권하윤 | 프랑스 | 2014 | 10min | HD | Color

<모델 빌리지>에 등장하는 마을은 북한의 선전용 거주지인 기정동 마을로부터 일부 영감을 얻은 장소이다. 권하윤은 대리여행을 진행하면서 배경을 드러내고 우리를 허구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 작품은 허구의 장치를 통해 이 유명 도시의 실제 상태를 증언하는데, 국경의 실체는 그 무대와 마주한다. 이 마을은 상상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곳이다.

Model Village

Hayoun Kwon | France | 2014 | 10min | HD | Color

The village is loosely inspired by a north korean propaganda village, Kijong-dong. Hayoun Kwon reveals a setting and invites us into a fiction, carrying out the journey by proxy. This film testifies to this ghost town in its true state as a mechanism of fiction. The reality of a border confronted with its staging. This village can only be reached within our imagination.



489년

권하윤 | 프랑스 | 2016 | 11min | HD | Color

<489년>은 전직 한국군 병사 '김'의 증언을 따라간다. 이 작품은 DMZ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한 병사의 개인적인 기억의 한가운데로 관객을 데리고 간다. 그는 조사 임무를 수행한 경험과 광산이 펼쳐진 지대 (이 광산은 남한이 건설했으나, 위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 속 장소는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그리하여 전적으로 자연이 지배하게 된 공간이다.

489 Years

Hayoun Kwon | France | 2016 | 11min | HD | Color

489 Years is transcribed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a former soldier in South Korea, Kim. It gives us access to the DMZ, and makes us immerse in the heart of the personal memory of a soldier. He tells us his experience in a research mission and the amazing discovery he made in the field full of mines (mines laid by South Korea with no record of where they were placed). He speaks of a place where people are forbidden, a place where nature has totally reclaimed its hold.





재커리 폼왈트

재커리 폼왈트(b.1979)는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미디어 작가이다.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와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한 이후, 2009년까지 라익스 아카데미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2015년 베오그라드 현대미술관 살롱에서의 개인 프로젝트를 비롯해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몬트리올 VOX 현대이미지센터, 웨스너 아트센터, 바젤 현대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소개되는 <언서포티드 트랜짓>은 2013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단편 부문 타이거상 수상작이다.

Zachary Formwalt

Zachary Formwalt (b.1979) is an artist and filmmaker based in Amsterdam, where he was a resident at the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until 2009. He is a graduate of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BFA) and Northwestern University (MFA) and attended the Critical Studies Postgraduate Program at the Malmö Art Academy. He has presented solo projects at the Salon of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elgrade (2015); Stedelijk Museum Bureau Amsterdam (2014); VOX Centre de l'image contemporaine, Montreal (2013); Wexner Center for the Arts: The Box, Columbus, OH (2010); and Kunsthalle Basel (2009). In 2013, his film, *Unsupported Transit*, received a Tiger Award for Short Films at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NL).

화폐 가치

재커리 폼왈트 | 네덜란드 | 2008 | 23min | HD | Color

20세기 초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가치의 급작스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던 우표를 덧인쇄하는 전략은 원본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 <화폐 가치>에서 덧인쇄된 우표는 경제적, 역사적 재현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At Face Value

Zachary Formwalt | Netherlands | 2008 | 23min | HD | Color

The strategy of overprinting postage stamps as a way to cope with rapid changes in value during periods of economic instability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poses problems for the role of the imagery defaced in such overprints. In *At Face Value*, overprinted stamps appear as interfaces between economic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이미지의 자본론

재커리 폼왈트 | 네덜란드 | 2009 | 25 min | HD | Color

1845년 봄, 윌리엄 헨리 폭스 텔벗은 4장의 런던 왕립 증권거래소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들은 19세기 금융기관의 건축 구조물뿐만 아니라 초창기 사진술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초창기 사진술이 움직이는 대상을 정확히 포착하거나 재현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 19세기 금융을 재현한 이미지와 사진기술의 제약으로부터 출발한 이 작품은 경제 운동과 사진의 발명 이후 회화적 재현양식의 영역 안에 위치한 기묘한 장소를 펼쳐 보인다.

In Place of Capital

Zachary Formwalt | Netherlands | 2009 | 25min | HD | Color

In the spring of 1845, William Henry Fox Talbot made four photographs of the Royal Exchange in London. What appears in these photographs is not only the nineteenth century edifice of a financial institution, but also an early limitation of the technology of photography itself: its inability to capture and clearly represent objects in movement. Beginning with this image of finance and the limitations of photography, *In Place of Capital* unfolds in the strange place between economic movements and the realm of pictorial representation after the invention of photography.



언서포티드 트랜짓

재커리 폼왈트 | 네덜란드 | 2011 | 15min | HD | Color

<언서포티드 트랜짓>은 중국의 첫 경제특별구인 선전(深圳)의 한 공사 현장을 배경으로 한다. 이곳에는 렘 쿨하스의 건축 사무소 OMA가 설계한 증권 거래소가 세워지는 중이다. 공사 현장을 배경으로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초기 연속 사진 그리고 유명한 말 사진 이전에 릴런드 스탠포드의 요청으로 진행한 커미션 작업 등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야기가 전개된다. 저속도 촬영 사진과 함께 칼 마르크스가 “자본의 축약된 형식”이라 일컫은, 즉 자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에 대한 서술이 진행되면서, 영화에서 이미지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Unsupported transit

Zachary Formwalt | Netherlands | 2011 | 15min | HD | Color

Unsupported transit is set on a construction site in Shenzhen, the first of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where a new stock exchange designed by Rem Koolhaas's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is now being built. On this site, a story is told that begins with Eadweard Muybridge's early sequential photographs and a commissioned work he carried out for Leland Stanford before the famous horse pictures were produced. The mechanism by which the images in the film were produced becomes clearer as the story moves on to a description of time-lapse photography and what Karl Marx described as the “abbreviated form of capital”—a form that makes capital appear to move of its own accord.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일: 10am—6pm
수, 토: 10am—9pm

MMCA필름앤비디오 관람시간

목, 금, 일: 10am—6pm
수, 토: 10am—9pm

입장료

서울관 통합관람권: 4,000원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6pm—9pm)

주차

운영시간(매일): 8am—11pm
시간당 2,0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Opening Hours

Mon, Tue, Thu, Fri, Sun: 10am—6pm
Wed, Sat: 10am—9pm

MMCA Film & Video Opening Hours

Thu, Fri, Sun: 10am—6pm
Wed, Sat: 10am—9pm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 won
Under 24s or over 66s: Free
Free admission every Wednesday &
Saturday from 6pm—9pm

Parking

Daily Hours: 8am—11pm
2,000 won per hour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02 3701 950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82 2 3701 9500

www.mmca.go.kr
artmu.mmca.go.kr
youtube.com/mmcakorea
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 (Kor)
facebook.com/nmmcakorea (Eng)